



제7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 제1절 통일교육
- 제2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 제3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 제4절 통일정책 홍보
- 제5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 제6절 통일업무 혁신

제7장

통일정책과 국민적 합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남북관계 분야별 자문회의 운영, 정책고객과의 대화, 민간 통일단체 지원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다양화, 인터넷을 통한 정책홍보, 남북관계·북한 관련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통일 아카이브(사료관) 구축, 각종 홍보자료 발간,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와 조화된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인사 초청 간담회,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국·일본 등 해외 현지 설명회 개최,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대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제1절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

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남북 화해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범국민적 통일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통일교육의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에 제시하고 기관별 추진계획을 취합·조정해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교육 내용 및 지도원칙을 담은 「통일교육지침서」를 일선 통일교육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통일교육지침서」는 교육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용」과 「학교용」으로 이원화하여 발간하고 있다.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는 국민들이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환경의 변화를 균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학교용 통일교육지침서는 청소년들이 통일과 북한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 대처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와 과제, 각급 학교별 및 교육과정별 권고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간 인적·물적 왕래 등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상호이해 및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07년에는 통일환경, 남북관계 현실에 대한 이해 제고 중심인 기존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요소를 접목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을 추진하였다.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은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남북간 이질화된 문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평화의 개념과 평화정착 방안, 남북 사회 이질화 및 통일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평화적 해결기법 등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실시기반을 마련하는 차

원에서 평화교육 내용체계 정립, 시범강의 프로그램 편성, 각종 콘텐츠 개발, 실시체계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였다.

1. 통일교육 추진현황

통일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발맞추어 통일문제 및 북한사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함양하기 위해 각급 학교 교사, 공무원 및 사회단체 간부 등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학교교사, 청소년, 공직자, 사회민간단체 활동가, 방북예정자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총 33,823명이 통일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참가하였다. 분야별로는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644명을 비롯하여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651명, 공직자 1,691명,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22,297명, 청소년 및 사회 각계 인사 4,555명이 통일교육을 이수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방문 인원이 급증하면서 1994년 방북교육을 실시한 이래 최다 인원인 22,205명이 방북교육을 이수하였다.

연도별 통일교육 이수자

(단위 : 명)

분야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통일미래지도자과정	—	—	—	29	36
사회통일교육과정	1,018	1,447	1,187	955	1,644
학교통일교육과정	4,610	3,716	1,679	1,555	1,651
공직자통일교육과정	1,056	1,268	1,087	1,447	1,691
남북교류협력과정	9,152	12,996	20,401	17,444	22,297
특별과정 등 기타	1,251	1,046	1,110	2,781	4,555
원격통일교육과정	—	561	956	1,654	1,949
계	17,087	21,034	26,420	25,865	33,823

아울러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적 내용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가치에 대한 이해, 사회통합 및 갈등해결을 강조하는 평화과목을



2007년 제3차 통일문화페스티벌 행사

신설·운영하였고, 통일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하였다.

청소년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07년 6월 7일부터 9일까지 제3차 통일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3,300명의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석하여 각종 문화행사·공연과 접목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청소년 통일교육프로그램인 ‘남북 청소년 대화’에서는 새터민 청소년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 대해 다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소년 대상 평화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남북화해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통합과정에서의 평화적 갈등해결에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였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사이버 공간상의 새로운 통일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00년부터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하루 평균 방문자수가 2,700여 명으로 2007년 말 현재 방문자수 590만여 명을 돌파하는 등 대국민 통일교육 포털사이트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교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교원 대상 원격통일교육 직무연수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2006년의 480시간보다 30시간이 늘어난 51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였

다. 이 중 장기과정(60시간, 4학점) 5회, 단기과정(30시간, 2학점) 7회 등 총 12회 1,949명의 이수자를 배출하였다.

교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원격통일교육을 2007년 9월 21일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공무원 대상 상시학습과정’으로 승인을 받아 10월부터 11월까지 통일부 직원(1, 2회 이수자 97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였다. 개설강좌는 『통일 문제의 이해』, 『북한의 정치·경제』, 『북한의 사회·문화』이며, 1강좌 당 5시간의 상시학습을 인정하였다. 2008년부터 공무원 대상 온라인 통일강좌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부처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매월 인터넷 웹진을 발간하여 정책고객 38,000여 명에게 PCRM(정책고객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학계인사 등의 「통일칼럼」, 남북관계 현장의 생생한 육성을 전하는 「현장에세이」,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참여마당」, 부내직원의 북한 방문기 「평화열차」, 이 밖에 통일 소식, 자료마당 등 다양한 내용들이 게재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인터넷 웹진의 활용도 제고와 홍보강화를 위해 외부인사와 원내교수로 편집위원회를 구성,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월별 테마 선정, 원고 집필자 추천, 이벤트 및 홍보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10월에는 ‘함께가는 평화변영의 길’ (통일칼럼) 및 ‘정상회담 수행기’ (평화열차) 등 「2007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특집호를 발간하였다.

한편,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해소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배움터의 Q&A, 통일게임, 통일만화, 북한 청소년 백과, 한마음학교 등의 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고 있다.

또한 4회째를 맞이한 「도전통일벨」 퀴즈 이벤트가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어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14,644명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참여하였으며, 50점 만점자 3명이 배출되었다.

온라인 통일교육을 통해 보다 폭넓은 수요자에게 다가가기 위해 「학점은행제」 및 인터넷방송 등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뒷받침하고 통일과정에 대비

통일교육 웹진(Unizine) 초기 화면



하기 위한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2006년에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을 개설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은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 리더십, 변화대처능력, 통합·조정능력과 정책실무능력을 갖춘 범국가 차원의 중견 정책결정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제2기 과정은 2007년 2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국가기관 국·과장급 및 공기업 간부 36명이 수료하였다. 교육생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16개 중앙부처 및 경기도, 전라북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과장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관광공사 등 8개 공기업 간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내용은 통일정책·북한이해·국제관계·통일과정 등 분야별 전문강의, 남북 교류현장 및 북한지역 방문·해외사례연구 등 현장체험, 협상시뮬레이션·현안문제토론회 등 참여학습, 정책과제연구, 정보화 및 외국어교육 등 소양 및 자기계발로 편성되었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현업에 복귀한 후 남북관계 관련업무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절차를 배우고, 남북



제2기 통일미래지도자과정 수료식 장면

교류협력 종사자들의 다양한 사업경험담을 통해 성공·실패 사례를 연구하는 등 이론과 체험학습을 병행하였다.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내용

구분	세부내용
기본교과	통일정책, 북한이해, 국제관계, 통일과정
참여학습	상호이해와 의사소통 훈련, 가치통합 및 갈등해결 프로그램, 협상 시뮬레이션, 현안문제토론회, 독서토론, 정책세미나
현장체험	현장탐방, 해외사례연구
정책과제연구	자료수집, 개인연구, 정책연구과제 지도·발표
소양 및 자기개발	소양교과, 외국어·정보화교육, 체육활동·사회봉사활동 등

이외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일 통일교사’,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대학생 통일포럼’, ‘남북관계 현안설명회’ 등 교육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1일 통일교사’는 통일부 직원이 모교, 자녀학교 또는 연고기관을 방문하여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7년에는 통일부

직원 108명이 1일교사로 참여하여 15,014명을 교육하였다. 통일부 직원들의 업무경험에 바탕을 둔 생생한 현장교육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다.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은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 영상물 시청, 눈높이 강의, 놀이교육을 묶어서 실시하는 전문 통일교육프로그램으로서 총 13개교 2,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고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였다.

‘대학생 통일포럼’은 대학생들이 연구·발표·토론하는 학생 중심의 참여 행사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9개 대학에서 총 1,450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학생들에게 토론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대학 사회 통일논의 활성화 및 대학생들의 통일 지향적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남북관계 현안설명회’는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현안 발생시 통일부 간부,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각 지역을 찾아가 설명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총 7회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국민 설명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합의기반 확대를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계기로도 활용하였다.

또한, 2007년에는 민간 NGO 단체 및 학교 등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통일교육원장 및 통일교육원 교수 등이 해당 단체 및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총 11,90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1일 통일교사 장면

2.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통일부는 국민들의 통일 및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기본교재로 『통일문제이해』와 『북한이해』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판 『통일문제이해』는 「2.13 합의」 등 6자회담 진전 상황과 남북관계 발전현황 등을 수록하였고, 『북한이해』는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을 중심으로 최신의 사진과 도표를 보완하였다. 이들 기본교재는 정부기관, 각급 학교, 도서관,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 2,854개 기관에 배포·활용되었고, 40여개 대학에서 강의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통일교육 참고 문헌자료로는 통일교육에 평화교육을 접목한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해』, 『평화지향적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발간하였고, 통일교육 현장에서 통일·북한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응답을 수록한 『자주 묻는 통일 이야기 50』을 발간하여 보급하였다.

2003년부터 통일·북한 관련 분야별 전문가가 집필한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강좌’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북한과학기술의 이해』,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 이야기』, 『북한의 환경정책과 실상』, 『북한의 종교 실상과 남북 종교교류 전망』, 『북한의 의료실태』,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등 총 8종의 ‘주제강좌’를 발간하였다.

또한 『남북한 물류망 구축: 그 실상과 과제』, 『남북 인적교류 현황과 실상』, 『북한의 에너지 사정, 어제와 오늘』 등 통일교육 참고자료 시리즈 3종을 발간하였다. 북한을 방문하는 국민들을 위한 안내서인 『북한방문길라잡이』는 내 금강 관광 개시, 개성공단 사업 진척 등의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한편,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실용적인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소식』을 연 2회(6월, 12월) 발간하여 일선 교육청, 통일교육 시범학교, 사회통일교육 기관 등을 중심으로 배포하였고, 『시사 통일교육 자료』를 3회에 걸쳐 발간하여 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최근 남북관계 현안 소식을 신속히 전달하였다.

2007년에는 아동·청소년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멀티미디어형 통일교육 자료를 다수 제작하였다. 이산가족을 소재로 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그린 『가자미의 눈물』과 꿈에서 접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그린 『혜미의 행복통일한국』 등 통일교육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교육청과 일선 중등학교에 보급하였다.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게임을 통한 남한 소녀와 북한 소년의 만남을 그린 만화 『게임 소녀와 평양 소년』을 제작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의 저변을 확장하였다. 남북관계 발전상황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해설한 영상자료 『준이의 통일여행』을 영어판과 일어판으로 제작하여 미국과 일본의 동포사회에 보급하였다. 학교통일교육용 애니메이션 『가자미의 눈물』의 수화·자막삽입본은 특수학교 등에 배포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2007년에 발간한 총 27종의 문헌·영상자료는 일선 통일교육 현장뿐 아니라 웹상에서도 널리 보급되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인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 통일교육 관련 자료를 DB화한 ‘통일교육자료방’을 연중 운영하여 발간자료 e-book, 관련 문헌, 사진, 동영상 등 201건의 자료를 게재하였다.

특히 2007년에는 자료방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청각 장애인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웹사이트에 새롭게 생성되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RSS(Rich Site Summary) 등 편의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자료검색·열람 서비스를 제고하였다.

3.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통일부는 미래의 통일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전국의 시·군·구 교육청 소속 장학사 400명

으로 「통일교육장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3, 중학교 10, 고등학교 5 등 총 18개교를 통일교육시범학교로 지정하여 각종 통일교육 교재와 자료를 지원하고 통일교육원 초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및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남북관계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고교생과 통일교육 담당교사 16,398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학생통일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총 147명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는 1982년부터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의 대학에서 총 38명이 응모하였으며,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선작을 선정, 시상하였다.

한편 통일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교육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총 6회에 걸쳐 광주, 천안, 금강산, 대전에서 1,220여명의 초·중·고 교장과 교감, 통일교육교사, 장학사 및 통일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통일교육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진단하는 계기를 가졌다. 2007년 12월에는 학교통일교육 전문가를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통일교육현장에서의 평화지향적 통일교육 실천방안」을 주제로 「통일교육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학교통일교육과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통일교육협의회에는 2007년 말 현재 민화협, 평화문제연구소, 경실련 통일협회,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96개의 다양한 통일교육 실시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협의회 소속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 및 각종 교재 등을 제공하고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9	원주시민센터
2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50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3	경실련 통일협회	5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4	교육복지연구원	52	정신개혁시민협의회
5	굿네이버스	53	좋은벗들
6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54	천도교청년회 중앙본부
7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55	초록생명평화센터
8	남북문화교류협회	56	통일건국민족회
9	남북문화통합교육원	57	통일교육문화원
10	남북사랑나눔기협의회	58	통일교육연구원
11	남북사회문화연구소	59	통일교육위원중앙협의회
12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60	통일맞이
13	남북청소년교류연맹	61	통일민주협의회
14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62	통일시대 충북연대
15	다물민족연구소	63	통일안보교육협의회
16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64	통일여성안보중앙회
17	대한기독교교자유연맹	65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18	대한민국팔각회	66	평화네트워크
19	대한불교청년회	67	평화를만드는여성회
20	대한YWCA연합회	68	평화문제연구소
21	동신대 동북아연구소	69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22	동학민족통일회	70	평화통일복지협의회
23	민족문제연구소	71	평화통일시민연대
24	민족문화교류재단	72	한겨레통일문화재단
2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73	한국가족문화원
2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74	한국걸스카우트연맹
27	부산여성회	75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28	부천시민연합	76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29	북방문제연구소	77	한국대학원리연구회
30	북한문제연구협의회	78	한국여성단체연합
31	북한연구소	79	한국여성단체협의회
32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80	한국자유총연맹
33	새마을운동중앙회	81	한국종교인평화회의
34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82	한국통일교육학회
35	세계평화여성연합	83	한국통일문화진흥회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36	세계평화청년연합	84	한국통일여성협의회
37	세계평화통일학회	85	한국통일진흥원
38	수원여성회	86	한국YMCA전국연맹
3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87	한민족복지재단
40	안산통일포럼	88	한민족복지협의회
41	어린이어깨동무	89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42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90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43	여성사회교육원	91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44	열린사회시민연합	92	한민족통일촉진협회
45	영세중립통일협의회	93	한반도평화운동본부
46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94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47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95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48	원불교청년회 평화의친구들	96	KYC한국청년연합회

2007년에는 통일교육협의회 본부 차원에서 통일교육포럼, 통일교육사례발표, 대학생 통일캠프, 통일교육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시민·청소년·정책개발 등 분과위원회에서는 「여성통일대토론회」,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 「청년평화통일아카데미」, 「청소년통일영상제」 등의 대상별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지역통일교육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주민 대상 「열린시민통일교육포럼」, 「대학생생명평화포럼」 등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통일관련 교육프로그램, 시설 및 정보 등이 부족한 지역주민들에게 통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전국의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역량을 갖춘 대학연구소(5개), 통일교육위원협의회 등 단체(5개)를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주체로 지정하였으며, 한 해 동안 총 217회의 통일교육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통일교육위원,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지역 통일교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 연계체제도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 현황

권역	센터명	단체명
영남(3)	부산	통일교육위원 부산협의회
	경남	통일교육위원 경남협의회
	대구·경북	경북대(평화문제연구소)
충청(2)	대전	대전통일교육협의회
	충남·충북	단국대(정책과학연구소)
호남(2)	광주·전남	통일교육위원 전남협의회
	전북	전북대(사회과학연구소 통일교육센터)
강원(2)	강원 동부지역	통일아카데미 설악수련원
	강원 서부 지역	한림대(국제문제연구소)
제주(1)	제주	제주대(평화연구소)

또한,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능력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를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하고 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통일교육위원협의회는 중앙 및 16개 시·도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1,153명의 회원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통일부는 이들 위원의 교육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초청 연찬교육 실시(2회), 통일대화의 광장 행사(1회)를 개최하였으며, 각종 자료 제공, 북한 현지방문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교육활동을 지원하였다.

전국 12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통일관은 북한·통일관련 자료 전시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통일교육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일관은 현재 부산, 광주, 인천, 청주, 대전,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일부에서는 각종 전시자료, 통일관련 정보자료 등을 지원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학생층을 중심으로 총 309만여 명이 통일관을 관람하였다.

한편, 통일교육에서 방송의 역할에 관하여 토론하고 통일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방송계와 전문가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통일·북한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진 워크숍’을 2007년 12월에 개최하였다.

제2절 통일·북한 정보자료 서비스

최근 북한은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주목할만한 정책변화를 보여왔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실상과 변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변화흐름을 예측하는데 주력하였다.

2007년도에는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대남 등 전 분야에 걸쳐 1,427건의 정보·분석보고서를 적시에 생산·서비스하여 대북정책의 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또한 계기별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 세미나·워크숍,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분석·평가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민간영역의 확장에 따라 급증하는 민간분야의 북한정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에는 317건의 정보자료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서비스하였으며, 886건의 정보자료를 통일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북한방송 주요내용’을 매일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주간 북한동향』 및 『월간 북한동향』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정기발간하여 북한의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정보 및 분석 자료를 국민들에게 적기에 제공하였다. 특히 책자배포 방식을 보완하여 전자메일 발송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정보자료를 적시에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분야별 변화 동향을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의 당·정·군 등 기관단체들의 조직구조 및 인물 현황을 종합 정리한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과 주요인물들의 세부 활동사항을 종합 정리한 『북한의 주요인물』 자료집을 발간하여 관계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서비스하였다.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한 전문기관 및 연구자들에 대한 정보자료 지원 및 교류 등 쌍방향적 협력체제를 강화하였다. 통일연구원 등 북한연구 전문기관과 정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보자료를 지원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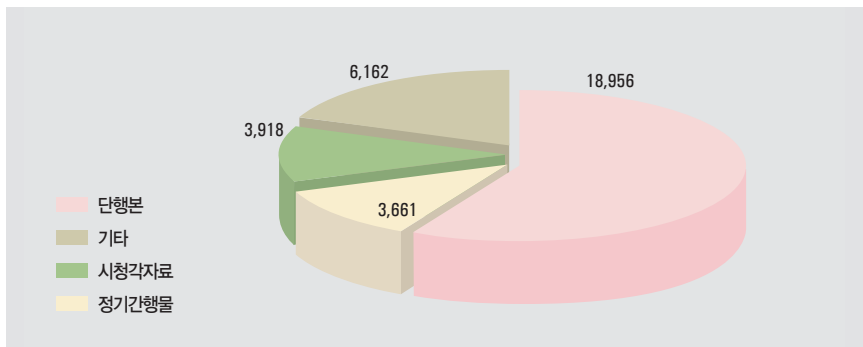
럼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아울러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러시아·EU 등 관련국 정부 및 연구기관과 북한관련 정보를 상시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정보교류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실상 등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1989년 5월 22일 「북한자료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북한 및 통일관련 자료를 수집·관리·지원하고, 북한영화 상영 및 북한실상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는 등 북한정보자료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북한관련 도서자료 6만 3천여 권, 정기간행물 9천여 권, 세미나자료 3천여 건, 시청각자료 7천 1백여 건, 통일부 발간물 6천 4백여 건 등 총 9만여 건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북한 원전자료 보유현황

(단위: 건)



「북한자료센터」는 통일 및 북한문제 전문가, 대학생, 관련 단체 회원 및 새터민이 함께 참여하는 「북한실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북한실상 및 북한주민 생활상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2007년에는 총 37회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4,810명이 참가하였다. 1989년

「북한실상 설명회」가 시작된 이후 2007년 12월말까지 총 441회를 개최하였으며 36,884명이 참가하였다.

「북한자료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2,300여 편의 북한영화를 1990년 3월부터 매월 1회(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정기상영하고 2006년부터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와 인천·창원·제주·부산·광주·청주 통일관 등 6개 지방도시로 상영지역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북한영화를 총 81회 상영하여 145,157명이 관람하였다. 1990년 북한자료센터에서 북한영화 상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5,531회에 걸쳐 총 1,009,374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에서는 북한 TV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에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공하고 있다.

2007년에는 북한 교과서, 예술영화 등 비이념성 북한자료 1,300여 건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국내 유관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정보자료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자료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국회도서관,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2004년), 그리고 연세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2005년),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소,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2006년)하였다. 2007년에는 서울대 통일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문제연구센터, 평화문제연구소 등 3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2007년 12월 말 현재 총 11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영상자료 우편대출 서비스를 통하여 그동안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북한정보자료의 접근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각급 학교 및 지역 공공도서관에도 북한 영상자료의 우편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5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제3회 「세계책나라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자료들을 소개하였고, 2007년 9월에는 제1회 「대한민국도서관축제」에 참가하여 ‘북한 주민에게 사랑의 메시지 보내기’, ‘백두산 배경으로 사진 찍기’ 등 다양한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2006년 8월 세계 도서관계 최대행사인 제72차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서울대회 기간 중 북한자료센터 주관으로 「2006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 방문도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제1회 「한·독 도서관 컨퍼런스」를 독일문화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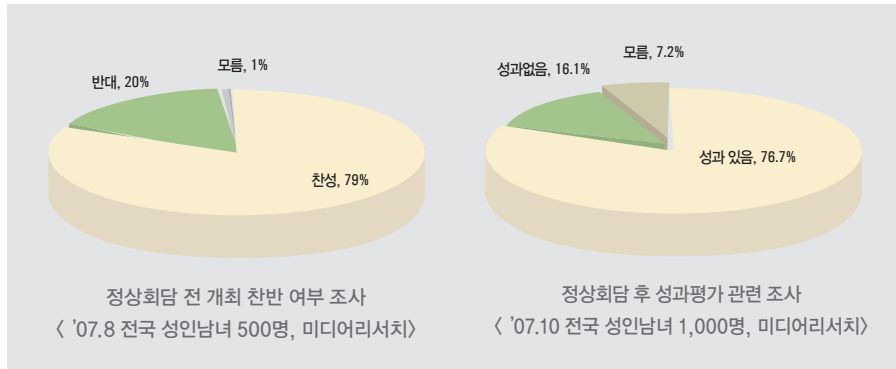
한편 「북한자료센터」 소장자료에 대한 무선주파수인식기술(RFID)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를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출입과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등 고객 중심의 도서관 환경을 구축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데이터베이스 검색기능을 강화하였고, 통일 및 북한관련 원문자료 1,000여건을 E-Book으로 제공하였다.

제3절 국민참여와 여론수렴

정부는 통일·대북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통로확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2007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이 활발히 이루어져 총 80여 회의 각종 설명회와 간담회, 여론조사 등이 실시되었다. 의견수렴의 범위와 방식도 다양화하여 각계 지도층 및 전문가 회의, 모바일·여론조사·홈페이지를 활용한 의견수렴 활동 등을 실시하였다. 분야별로는 국회, 언론, 자문·평가위원 등과의 회의·간담회 30여 회, 학계, 연구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간담회 15회, 각국 대사 등 국제사회 관계자와의 면담·간담회 16회, 그 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각종 회의가 20회 이상 개최되었다.

정책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법정 위원회에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민들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되었



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5명의 위원 중 9명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18명 중 4명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25명 중 14명이 각각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수렴과 참여확대를 위해 ‘통일 고객마일리지’, ‘통일정책 모니터링’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마일리지 제도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홈페이지상의 ‘국민참여 마당’에 개설된 ‘전자공청회’, ‘정책제안’ 등 온라인 활동 및 ‘통일교육’, ‘정책고객과의 대화’ 등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한 실적에 따라 남북교류협력 현장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현재 38,000여 명의 마일리지 회원들이 홈페이지의 ‘이슈토론방’, ‘정책제안’, ‘자유게시판’ 등의 코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7년에는 마일리지 회원과 정책고객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고객이 제공받던 뉴스레터, 정책자료 등을 마일리지 회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일리지 회원을 포함한 정책고객 50여 명에게 금강산 현장 견학, 대북지원 인도 인수 현장 방문 등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남북경협 종사 기업인, 학자·연구원 등을 포함한 대북정책 전문가, 이산가족, 통일교육 담당교사 등 대북정책의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에 의뢰하여 주요 대북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당초 모니터링단의 규모를 100명에서 시작하였으나 2006년부터 전문가 및 대북정책·사업의 직접적 이해 관계자 고객 700명과 일반국민고객 3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하였다. 북핵문제 해결, 경협사업 확대, 회담의 제도화 등 2007년 한 해의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찬반여부, 성과 평가 등 중요한 현안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고객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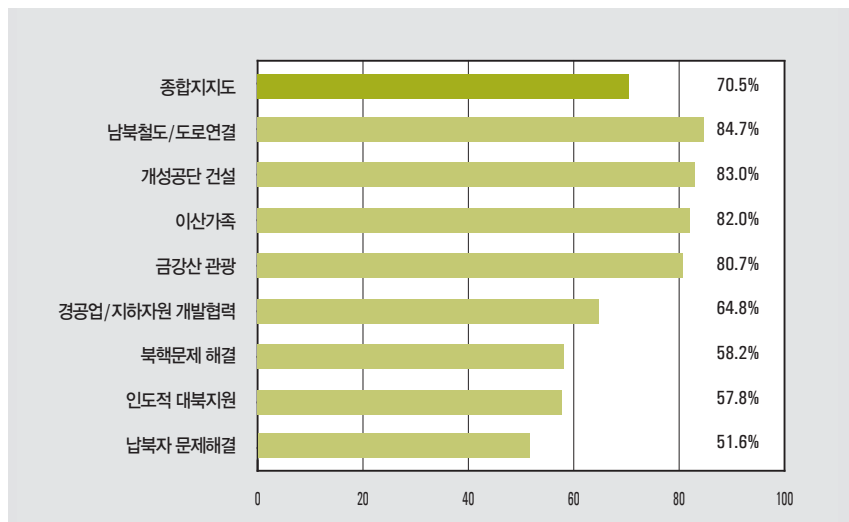
국민 여론수렴 활동은 특정 사안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고객과의 대화’는 통일부 장·차관 및 팀장급 이상의 당국자들이 여러 분야의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및 남북관계 현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수단이다.

2007년 한 해 동안 장·차관과 간부들은 언론사와 학계의 남북문제 전문가 그룹은 물론 대북문제 관련 단체나 업체 관계자 등을 수시로 만나 대북정책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현안 및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직능별 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등 통일문제 관련 주요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치·군사·경제 등 각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다. 아울러 분야별 정책고객 관리를 강화하여 통일부는 2007년 한 해 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대표자, 남북교류 관련 민간단체 및 남북경제협력사업 관계자 등과 수시로 정책고객과의 대화를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 각 분야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통일정책평가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74명)와 통일정책평가회의(25명)는 군사안보·국제관계·남북경제·법제관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한 해 동안 총 24회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통일 및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책과정에 반영하고자 국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는 전반적인 통일의식 조사와 대북정책 지지도 평가 외에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와 관련한 조사 등 총 3회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의 신뢰성 제고, 심층 질문 등을 위해 기존 전화조사에서 면접조사로 조사방식에 변화를 주었다.

대북 정책 지지도('07.8 전국 성인남녀 1,000명, 미디어리서치)



한편 1990년대 이후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에는 20개의 신규단체가 추가되어 12월 말 현재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은 총 213개이다. 이들 단체의 활동 영역도 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연구·조사, 이산가족·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교류협력사업 추진, 통일교육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의 통일정책 토론회, 지역순회 통일포럼 등을 지원하면서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렴하고 통일문제와 현안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제4절 통일정책 홍보

통일부는 대북정책 추진 및 남북관계 현황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언론매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대북정책 추진 관련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언론에 브리핑하고 보도자료도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30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장·차관이 49회의 브리핑을 실시하였다. 또한, 매일 대변인이 「데일리브리핑」을 통해 남북관계 관련 주요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장·차관을 비롯한 간부들은 주요언론 인터뷰와 방송 등에 출연(72회)하여 대북정책 관련 주요 현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였다.

2007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남북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 각종 남북회담 및 행사시에는 프레스센터를 설치·운영하고, e-브리핑 활용, 외신프레스킷 제공 등 내외신 기자들에게 취재편의를 제공하였다. 해외언론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지구 등에 대한 취재도 지원하여 남북경협 현장을 국제사회에 알리기도 하였다.

한편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에 「통일부 생생뉴스」 메뉴를 신설하였으며, 국정브리핑 「통일부뉴스」(unikorea.korea.kr)를 통해서도 관련 소식을 전달하였다.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www.unikorea.go.kr)는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관한 중요한 포털사이트로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통일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에도 홈페이지 개편방향에 대해 네티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2007년은 남북간에 많은 회담과 행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홍보자료들이 제작되었다. 『평화를 향한 길주 4년』은 수목화 일러스트 등의 비주얼을 통해 참여정부 4년간의 대북정책 성과를 소개하였다. 「2007 남북정

통일부 대표 홈페이지 메인화면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 홈 > 시작페이지 > 모바일 > 어린이/청소년이용 > 사이트맵

통일부 소식

정책자료

북한동향

국민참여

친친친원

통일부소개

통일하는? | 참가신청서 | 조직 및 연락처 | 행정서비스항상 | 통일무대 | 찾아오는 길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 **평화나무!**

국립자연사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 참관정보 MORE ▶

신현래 통일고문회의
미자정 통일부장관
2008-01-11

> 기관과의 대화

> 통일부브리핑

2007년 남북교역액 17억9천만달러

News letter > 월간남북교류협력동향

월간 남북교류협력 현황	금일	전월비
개성공단	북한주요인물 949 +64	이산가족회생정보 739 +30
공강산	북한주요인물 837 +124	이산가족회생정보 280 +8
개성공단	북한주요인물 232 +10	이산가족회생정보 0 0
개성공단	북한주요인물 26 +3	

> 이럴 땐 이 사이트

- 북한지리센터
- 이산가족회생정보
- Cyber통일교육시스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남북의료원
- 개성공업지구지원위원회
- 남북교류협력지원센터

통일부 생생뉴스

MORE ▶

경공업 원자재 대북차관 2차 상환 광물 인천철 도착
상환된 광물은 조달청과 광물산업협회를 통해 국내업체에 매각 처리
2007년 도 경공업 협회와 대북 현물차관 채굴(8,000만달러)에 따른 초년도 대가 상환 2차분 상당광물(흑탄산 마연코 약 500톤)이 1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2008-01-04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발간
금강산 및 개성관광현황, 백두산 관광의 중요성 등 정리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북한의 관광실태와 향후 남북 간 관광협력 방안 이해 제고를 위한 통일교육 참고자료로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을 발간하였습니.

2008-01-04

통일부 생생뉴스

[서해통합합력특별자치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

NGO 커뮤니티

MORE ▶

> 2007년 북한민 위크스 연례... 2007-12-11

> 동대북지회_남북 장애인 교류의 줄기 끈는 형태... 2007-12-11

> 남북나눔 -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인도적 대책지... 2007-12-09

날마다 바빠 오늘의 주요기사 보도자료 언론보도대행

> 2008-01-14 주안 주요일정(1.14.)

> 2008-01-07 주안 주요일정(08.1.7.)

> 2007-12-27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백과 제1차 회의' 3일..

> 2007-12-26 금강산관리위원회 '관련 개성실업대책 결과 등...

> 2007-12-24 김주 남북회담 일정을 중 주안 주요일정..

오늘의 개성공단 주요소식 / 법제도 / 투자정보 / 통계

> <여기는> 개성 <개성공업지구> 지원단 출범식 2008-01-10

> The First Meeting Of GCS Cooperation Sub-committee 2007-12-28

> 여기는 개성 <개성공단 2단계 개발 계획> 식구 2007-12-18

소통과 참여

MORE ▶

> 전문가 협업

> 북한 여행기

> 통일 뉴스

> 통일 전문지

> 통일 전문지

부서블로그 > NAVER

> 정책홍보본부 > 혁신경제기획본부 > 남북경제협력본부 > 사회문화교류본부

> 개성공단사업지원단 > 남북출입사무소 > 화하원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공감하는 글귀>
있음은 그 소망하는 로리라...
모든것을 다 잃어 버린 후에야 알게 된다

정확한 정보 | 장관과의 대화 | 정책제언 | 사이버전문조사 | 전자공정성 | 분야별 바로 가기 | 통일정책 | 이산가족 | 북한미래 | 경제협력 | 개성공단 | 통일교육 | 남북회담 | 일반발령 | 사회문화 |

자유무역협정
국내대기업인위

정부지원
국가보장

안전보장
국가보장

경제성장
국가보장

사회복지
국가보장

교육
국가보장

문화
국가보장

환경
국가보장

건강
국가보장

전화 문의번호 02-2100-5857~8

자유무역협정 국내대기업인위

정부지원 국가보장 안전보장 경제성장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건강

사이버대 검색

검색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처음이세요?

초행길 내비게이션

> 멀티미디어 자료실 MORE ▶

- Uni UCC
- 홍보영상
- 정책영상
- 포토갤러리

최근 통일에 대해 알려줘

>>> EASYGO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2008 ~ 2012

>>> EASYGO

> 통일정책統

- > 통일부 편찬보고서 목록
- > 평화변명정책
- > 통일부 핵심정책

정보공개 국회정보공개

> 오늘의 공강산 MORE ▶

- > 금강산현황
- > 주요소식
- > 금강산통계

> 북한 동향 MORE ▶

- > 북한주요소식
- > 북한변화동향
- > 북한정보자료

> 통일부 주간일정

1월 13 14 15 16 17 18 19

08:20 화상승조점검회의
09:30 국무회의

통일시포터즈

판문점 방문 견학

Today 830 Yesterday 1,502
Total 7,751,402

통일부 운영 분야별 홈페이지 현황

사이트 명	주 소	주 요 내 용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부 생생뉴스, 정책자료, 북한동향, 국민참여, 전자민원, 통일부 소개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소장자료검색, 북한·통일정보, 자료실 북한영화소개, 북한실상설명회, 참여마당
남북회담본부	dialogue.unikorea.go.kr	회담소식, 회담 자료실, 남북합의서 참여마당, 판문점, 회담검색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새소식, 남북이산가족찾기, 그리운 가족 가고픈 고향, 자료실, 열린마당
남북교류협력 시스템	inter-korea.unikorea.go.kr	북한주민접촉, 북한 및 남한방문, 협력사업 교역물품반출입, 수송장비 운행, 개성공단
사이버통일교육 센터	www.uniedu.go.kr	원격통일강좌, 교육과정안내, 참여마당, 사이버통일 교육, 청소년통일배움터

상회담」 홍보책자 『더불어』는 총 60만부를 발간하여 통일부 정책고객은 물론 초·중·고, 지방자치단체, 병원, 은행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2007남북정상회담」의 주요장면들을 편집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 블로그, 판도라 TV 등 온라인 매체에 게재하고 각종 시청각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 홍보를 위한 사진집, 리플렛, 포스터 등의 인쇄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였으며, 열차시험운행(5.17)과 남북화물열차 개통(12.11) 홍보 영상물을 전국 95개 전광판에 표출하였다.

2006년도 블로그 동영상 공모전에 이어 2007년에도 ‘통일부 UCC 홍보동영상’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들의 대북정책 참여도를 제고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만든 홍보영상물을 통일부 홍보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쌍방향 직접홍보 서비스인 정책고객서비스(PCRM)를 실시하여 일반국민·전문가를 대상으로 관심분야에 따라 맞춤형 정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5,000여 명의 정책고객에게 남북관계 주요현안 및 남북회담 소식과 해설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고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책고객의 수요에 맞춘 특화된 뉴스레터를 개발하여 제공하였다.

통일부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구분	수상작	수상자
최우수상	우리는 같은 하늘에 사는 가족입니다	한윤국
우수상	북한의 동포들, 이제는 만나러 갑니다 평화, 나누지 않기 다섯글자	윤광석 임정섭 신혜원
장려상	만들레의 노래 통일염원 자작곡 통일을 생각합니다 평화를 외치다 돌이 하나 되는 이야기	김정수 이민경 김상수 허용 김철희, 김정은



통일부 뉴스레터



영문 뉴스레터



주간 북한 동향



개성공단 뉴스레터



회담 합의서 등 현안 자료



통일교육 웹진

제5절 국제협력과 해외홍보

통일부는 한반도 문제와 남북관계 주요 현안에 대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정례적인 정책협의를 하여 왔다. 주요국과의 정책협의를 6자회담과 남북대화·협력의 선순환 방안, 북미·북중 관계 등 주변국의 대북 관계와 남북관계의 조화·발전방안,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남북관계 추진방안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주변국들의 공통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남북정상회담, 남북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이 추진되는 전후에 통일부장관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대사를 만나 정부의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남북관계 추진과정에 반영하였다.

통일부를 방문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의 진행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모하는 노력도 지속되었다. 2007년 통일부를 방문한 주요 외국 인사로는 리처드슨(Bill Richardson) 미국 뉴멕시코주 주지사, 힐(Christopher Hil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시오자키 일본 전 관방장관, 야마사키 타쿠 등 일본 의원단, 퍼커(Hubert Pirker) 의원 등 EU 「한반도친선협회」 의원단, 코썽(Hartmut Koschyk) 의장 등 「한독의원친선협회」 의원단, 니더비저(Erwin Niederwieser) 등 오스트리아 의원단 일행 등이 있다.

2007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에서 총 10회의 「국제통일전략 대화」를 개최하였다. 「국제통일전략대화」는 남북관계 진행상황, 북핵문제 추이, 주변국 대북정책 변화 동향 등을 감안하면서 시기와 지역에 걸맞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각국 정부관료, 전문가가 참여하여 1~2일간 집중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통일전략대화」추진시 미국의 국무부·NSC, 중국의 외교부, 일본의 공안조사청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남북관계 추진상황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대북정책에 관심을 가지

고 있는 다양한 그룹의 외국인 정책고객을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남북 관계 주요 현안 브리핑, 개성공단·금강산 등 현장방문, 주요국 현지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다.

남북정상회담, 총리회담 등 주요 계기시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브리핑을 실시하고 모든 주한 공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회담 경과와 합의내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각국 주한 공관 외교관을 대상으로 금강산·개성공단 등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이들에게 남북 관계 진행상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07년 10월에 실시한 주한 공관 외교관의 금강산 방문 및 남북관계 워크숍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6개 국가 주한 외교관이 참석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 직후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한 특별수행원들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파견하여 정상회담 성과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미국 의회 보좌관단, 한·미 의회 청년교류사업 미국대표단 등 통일부를 방문하는 다양한 외국인 그룹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07년에는 통일부장관과 남북 겸임대사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평양클럽」을 결성하였다. 현재 캐나다·이탈리아·EU 등 15개국 대사가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대사를 겸임하고 있다. 「평양클럽」은 남북관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실무차원에서는 남북경협에 관심있는 주한공관 외교관들로 「금강클럽」을 결성하여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함께 방문하고 수시로 만나 남북경협, 대북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금강클럽」은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 16개국 주한 공관 외교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워크숍, 정책토론, 친선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쌓아 나가고 있다.

또한 방한 외국인 전문가들을 통일부에 초청하여 이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인터내셔널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미국 국무부 전직 관계관, 핵전문가,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 일본 오사카 시립대 교수,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하여 ‘남북관계와 6자회담 프로세스’, ‘동북아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 ‘북한 핵폐기 및 검

증방안', '독일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 '북·일관계 전망' 등의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현지에서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현지 오피니언 리더들과 남북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미국 2회, 일본 3회, 중국 5회 등 총 10회가 개최되었다. 연구모임은 미국의 경우 KEI, CRS, CSIS 등 유수의 연구기관 소속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대, 시즈오카 현립대, 릿쿄대 등 대학 중심으로 운영되어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납치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대북 정책 변화 전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국은 북경대, 중앙당교, 당 대외연락부 등 민간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동북아 다자안보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였다.

한편 대북정책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이해를 돕고,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제17차 「세계한민족통일문제대토론회」('07.12.10~14)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 등을 통해 남북관계 현황과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평가와 견해를 청취하였다.

또한 중국 및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해서는 7개 동포사회의 신문과 방송에 「통일칼럼」을 매월 게재하고 있으며, 러시아 사할린 새고려신문사의 「2007 무궁화 문예콩쿨」 등 7개 동포 기관과 단체가 주관하는 통일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등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동포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제6절 통일업무 혁신

통일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촉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의 특성에 맞는 혁신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했다.

연간 국내에 입국하는 새터민의 수가 2002년 1,000명을 넘었고, 4년 뒤인 2006년에는 2,0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새터민들의 우리사회의 안정적 정착은 앞으로 다가올 통일한국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새터민들의 안정적 정착에는 경제적 안정성 확보가 긴요하다고 보고, 새터민들의 취업현황, 직장 적응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이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우선 새터민 정착지원의 첫 출발점인 하나원이 새터민의 관심과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취업에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실직자 재교육을 새터민들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새터민들도 노동부의 취업DB에 등록하여 구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하나원 교육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하나원 퇴소 후 1년 뒤 종료되는 정착도우미 서비스를 희망자에 한해 연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주도우미' 제도를 2007년 6월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새터민 교육 만족도

구성항목	'06년	'07년	전년대비 향상도
교육필요성	90.5%	94.7%	4.25%
교육내용 만족도	85.1%	87.0%	1.9%
강사 만족도	91.8%	91.8%	0.3%
교육내용 이해도	83.3%	170%	1.70%
평균 교육만족도	87.6%	89.7%	89.7%

*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박사가 '06년과 '07년 하반기에 각기 조사

한편 새터민 자녀들은 대부분 같은 나이의 남한 학생들에 비해 학력 격차가 심하며, 학교 중도탈락률이 남한 학생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에 새터민 청소년 전문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집중심화교육과 심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대학 진학률과 취업

를 등에서 점차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각종 남북대화에 대한 기록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일아카이브’ (통일사료관)를 구축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 사료적 가치가 높은 통일 관련 기록물을 집중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으로 통일사료관리팀을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였다. 통일사료관리팀은 남북대화 관련 각종 자료들을 새로 구축된 ‘통일아카이브’ 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한편, 통일사료의 발굴과 수집, 보존과 관리 및 사료활용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공개하였다.

또한 남북 관계가 심화·발전되어 감에 따라 전문 인력의 확보와 유연한 조직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갖춘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구조를 도입하였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어 신규 업무량이 가중되자 개성공단 개발지원 업무, 전략물자 판정 등을 아웃소싱함으로써 약 80명의 인력추가 소요를 절감하였다.

한편 남북회담이 「2007 남북정상회담」 이전 대비 연평균 약 350%로 폭증하고, 남북한간에 합의된 사업에 대한 현지공동조사가 증가하면서 예산과 인력 등에서 과부하가 발생하였다. 통일부는 이러한 업무현실을 타개하고자 부처간 중복적인 업무수행, 과도한 상황대기 문제를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상황실 통합운영, 대기인력 축소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역량을 강화하였다.